



#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anuary 2026 Issue | Vol. 07

## SPECIAL POINTS OF INTEREST

- **BSP: 지정학적 리스크, RCEP 대응 요구** — page 1-2
- **BIR, 민간 부문과 협력해 강화된 세무 감사 규정 확정** — page 2-3
- **PEZA, 수출 및 투자자 비자 서류 절차 간소화 계획** — page 3
- **NCR 가사 근로자, 월 800페소 임금 인상** — page 4
- **2025년 무역적자, 4년래 최저 수준으로 감소** — page 4-5
- **성장 반동의 열쇠는 투자 회복** — page 5
- **필리핀, 아세안 통합에서 진전... 그러나 여전히 뒤처져** — 싱크탱크 — page 6-7

## BSP: 지정학적 리스크, RCEP 대응 요구

January 24, 2026 | Andrea E. San Juan | BusinessWorld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 BSP)이 발표한 토론 논문(Discussion Paper)에 따르면, 글로벌 무대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상품 교역과 국경 간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들은 역내 통합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헤이즐 C. 파르콘-산토스(Hazel C. Parcon-Santos)와 호세 아들라이 M. 탄캉코(Jose Adlai M. Tancangco)가 공동 집필한 BSP의 연구는, 해당 논문이 “경제적으로 협력적인(economically cooperative)” 블록이라고 명명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원국들 간의 무역과 투자에 지정학적 이점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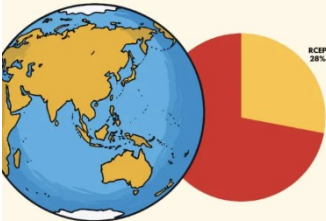
BSP 논문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양자 간 무역 및 투자 데이터를 사용하고, 확장된 중력 모형(augmented gravity model)을 적용한 분석 결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내에서 상품 교역과 국경 간 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연구는 그 영향이 “비대칭적(asymmetric)”이라고 지적하며, 무역은 지정학적 마찰에 대해 투자보다 더 큰 회복력을 보이는 반면, 투자 가운데서는 직접투자보다 포트폴리오 투자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덧붙였다.

논문은 포트폴리오 투자 잔액(portfolio investment positions)이 직접투자보다 “지정학적 거리(geopolitical distance)에 더 민감하다”고 밝혔다.

BSP는 논문에서 지정학적 거리가 포트폴리오 투자와 직접투자에 미치는 “비대칭적 영향(asymmetric impact)”은 두 투자 유형의 성격 차이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28% OF GLOBAL GDP  
26% OF GLOBAL EXPORTS**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is the world's largest trading bloc, accounting for about 28% of global GDP and 26% of global 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as of end-2023. Despite this scale, BSP research shows that geopolitical tensions still materially weaken trade and investment flows—even within a cooperative bloc.

BM Graphic; Ed Davad/Source: BSP

필리핀 중앙은행의 연구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이자, 배당, 자본이득을 통해 단·중기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높아 쉽게 회수되거나 이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구는 포트폴리오 투자가 지정학적 긴장을 포함해 시장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들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직접투자는 전략적이며 장기적인 투자 약정에 해당한다. BSP 논문은 국제통화기금(IMF)을 인용해 “직접투자는 해외 자회사, 합작투자, 또는 현지 기업에 대한 지배 지분 확보 등 지분을 10% 이상을 보유하는 형태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BSP는 이와 같은 이유로 직접투자가 단기적 변동에 대응해 빠르게 철회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점착적(sticky)’인 투자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과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거나 고조될 경우 포트폴리오 투자와 직접투자 모두에 대한 추정 효과가 확대돼, 두 투자 유형 모두에서 더 뚜렷한 누적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는 ‘협력적 블록(cooperative bloc)’ 내에서도 지정학적 긴장이 경제 활동을 상당히 교란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Cont. page 2]

## BSP: 지정학적 리스크, RCEP 대응 요구

[Cont. from page 2]

논문은 RCEP 역내에서 국경 간 투자가 무역 흐름보다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지적했다.

BSP 연구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인식되는 위협을 증폭시키고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며, “특히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은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대응해 보유 자산을 보다 신속하게 재배분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상품 교역은 ‘깊이 내재된(deeply embedded)’ 생산 네트워크와 구축된 공급망에 의해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통적인 무역 장벽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고, 많은 경우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교역과는 대비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구는 RCEP 회원국들 사이에서 역내 통합과 경제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proactively managing geopolitical risks)”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세계 최대의 교역 블록으로, 2023년 말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8%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RCE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5개 경제로 구성돼 있다. 10개 아세안 회원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함께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대한민국이 포함된다.

RCEP는 2020년에 체결됐으며, 2022년에 발효됐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6/01/24/bsp-geopolitical-risks-to-require-rcep-action/](https://businessmirror.com.ph/2026/01/24/bsp-geopolitical-risks-to-require-rcep-action/)

## BIR, 민간 부문과 협력해 강화된 세무 감사 규정 확정

January 26, 2026 | By Manila Bulletin Newsroom | Manila Bulletin

국세청(BIR)은 세무 감사 중단 조치를 해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감사관 재량을 제한하고 민간 부문의 세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강화된 제도적 틀을 도입할 예정이다.

BIR은 1월 26일 월요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안된 개혁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마리사 O. 카브레로스(Marissa O. Cabreros) 부국장이 이끄는 기술 실무 그룹이 작성한 세 지침은, 과도한 세액 산정과 세법 적용의 일관성 결여와 관련된 오랜 불만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이 최종 확정되면, 모든 신규 조사는 이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개혁 패키지의 핵심은 ‘단일 감사(single-instance audit)’ 규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과세 연도별로 단 한 번의 전자 권한서(eLA, electronic Letter of Authority)만 적용받게 된다. 이 단일 eLA는 모든 국세를 포괄하며, 역사적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었던 중복·다중 조사의 관행을 사실상 종료하게 된다.

동일 납세자와 동일 기간에 대해 발행되는 추가 eLA는 자동으로 통합되지만, 납세자는 특정 기준에 따라 비통합 요청을 할 수 있는 제한적 기간을 가진다.

찰리토 마틴 R. 멘도사(BIR 국장)는 이번 개편이 기관의 “D.A.R.E.S.” 정책의 핵심 축이라며, 이는 디지털 전환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의무적이지 않은 감사는 익명화된 납세자 명단을 활용한 위험 기반 시스템 지원 선택 프로세스로 전환함으로써, 국세청은 감사 선정 초기 단계에서 인간의 주관적 판단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지역 투자 환경을 위축시켜 온 기업 대상의 무차별적 감사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Cont. page 3]



Photo shows the skyline at the Ortigas Business Center in Pasig.

## BIR, 민간 부문과 협력해 강화된 세무 감사 규정 확정

[Cont, from page 2]

필리핀 상공회의소(PCCI), 필리핀 경영자 협회(Management Association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금융임원협회(Financial Executives Institute of the Philippines) 등 민간 부문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이러한 새로운 안전장치 하에서 감사 재개에 대해 별다른 반대를 표하지 않았다.

PCCI 사무총장 루벤 파스쿠알(Ruben Pascual)은 이번 개혁이 과거 많은 납세자를 장기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분쟁으로 몰았던 “과도한 초기 세액 산정”을 겨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내부 직원들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표준화된 감사 체크리스트와 엄격한 감독 검토를 도입하고 있다. 새로운 지침을 위반하는 세무 공무원의 제재를 받게 되며, 롤란도 리곤 주니어(Rolando Ligon Jr.) 재무부 차관은 이 조치가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술 실무 그룹은 현재 20개 민간 단체의 최종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 몇 주 내에 감사 중단 조치가 공식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Jun Ramirez)

<https://mb.com.ph/2026/01/26/bir-enlists-private-sector-to-finalize-tighter-tax-audit-rules>

## PEZA, 수출 및 투자자 비자 서류 절차 간소화 계획

January 25, 2026 | Justine Irish D. Tabile | BusinessWorld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은 올해 상반기 중 서류 제출 요건을 더욱 간소화하고, 허가 절차를 관세청(BoC)과 출입국관리청(BI)의 절차와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레소 O. 팡가(PEZA 청장)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개혁이 필리핀의 지역 내 투자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ZA에게 이번 개혁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운영상 필수 과제로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는 청렴 서약을 넘어, PEZA의 청렴 프레임워크를 운영 시스템에 직접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대대적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PEZA는 이번 달에 PEZA 원 포털 시스템(PEZA One Portal System)의 허가 관리 시스템(PMS) 모듈을 통해 수출 서류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상반기에는 이 모듈에 예코존 이전 시스템도 포함되어 e-LoA(권한서)와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이를 통해 전자 허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관세청과 완전히 연동되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1분기에는 PEZA가 출입국관리청(BI)과 함께 PEZA 비자 온라인 시스템(PEZA Visa Online System)도 출시할 예정이다.

그는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그 가족의 PEZA 비자 발급이 보다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며, 투자자 친화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다.

또한, PEZA는 국세청(BIR)과 협력하여 등록 사업체 전용 납세자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PEZA는 또한 투자위원회(BoI)와 협력하여 자동차 산업 종합 부흥 전략(CARS) 및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성화(RACE) 프로그램의 시행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그는 “대규모 개혁은 중요하며, PEZA는 다른 정부 기관과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예코존 내외의 국내외 투자자에게 보다 나은 생태계를 제공하는 성과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필리핀이 아세안(ASEAN)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국 중 하나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면, “외국인 직접 투자, 수출, 실질 국내총생산(GDP) 측면에서 아세안 2위 또는 3위를 목표로 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6/01/25/726310/peza-planning-seamless-process-for-export-investor-visa-documentation/](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6/01/25/726310/peza-planning-seamless-process-for-export-investor-visa-documentation/)

## NCR 가사 근로자, 월 800페소 임금 인상

January 22, 2026 | Erika Mae P. Sinaking | BusinessWorld



MACROVECTOR/FREEPIK

필리핀 수도권(NCR)의 가사 근로자들은 지역 임금위원회가 최저 월급을 800페소 인상하기로 승인함에 따라 임금 조정을 받게 된다.

수도권 지역 삼자 임금 및 생산성 위원회(Regional Tripartite Wages and Productivity Board - NCR)는 가사 근로자(카삼바하이, kasambahays)의 월 최저임금을 기존 7,000페소에서 7,800페소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은 임금 명령 제 NCR-DW-06호(Wage Order No. NCR-DW-06)를 통해 시행되었다.

노동고용부(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는 목요일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이번 임금 조정을 발표하며, 새 임금은 공식 공고 후 15일 만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금 인상은 메트로 마닐라 전역의 모든 가사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거주형(live-in)과 비거주형(live-out) 근로자 모두 포함된다. 해당 명령은 일반 가사 도우미, 유모, 요리사, 정원사, 세탁 업무 수행자를 구체적으로 대상으로 한다.

반면, 기타 서비스 제공자, 가사 운전기사, 또는 비정기적·일회성 가사 근로자는 이번 인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1월 12일에 열린 공개 청문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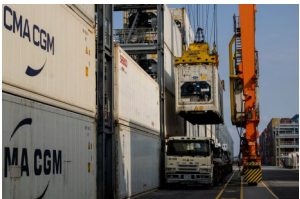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National Wages and Productivity Commission)는 “공개 청문회 결과, 지역 내 기존 사회경제적 여건, 가사 근로자와 그 가족의 필요, 그리고 고용주의 지급 능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사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NCR 가사 근로자에 대한 마지막 임금 인상은 2025년 1월 4일 임금 명령 제 NCR-DW-05호(Wage Order No. NCR-DW-05)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당시 최저임금은 7,000페소로 설정되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6/01/22/725985/ncr-domestic-workers-to-get-p800-monthly-pay-hike/](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6/01/22/725985/ncr-domestic-workers-to-get-p800-monthly-pay-hike/)

## 2025년 무역적자, 4년래 최저 수준으로 감소

January 27, 2026 | Abigail Marie P. Yraola, Deputy Research Head | BusinessWorld



A truck is loaded with a container at the Manila International Container Terminal at the Port of Manila in Manila, Philippines, Aug. 11, 2025. REUTERS/Eloisa Lopez

필리핀의 상품 무역 적자가 2025년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좁혀졌다고 필리핀 통계청(PSA)이 화요일 발표했다. 수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수입도 증가한 결과다.

PSA의 잠정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의 무역 적자는 2025년 전년 대비 9.5% 감소한 491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도 543억 3,000만 달러 적자보다 줄어든 수치다.

이번 수치는 2021년 421억 9,000만 달러 적자 이후 4년 만에 가장 작은 무역 적자를 나타낸 것이다.

2025년 상품 수출은 15.2% 증가한 844억 1,000만 달러로 집계되며, 정부가 예상했던 2% 감소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2024년 0.5% 감소로 732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던 것에서 반등한 결과이기도 하다.

전체 수출에서 54.4%를 차지한 전자제품 수출은 17.6% 증가한 45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자제품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18.7% 증가한 346억 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5년 기준, 미국은 현지 생산 제품의 최대 수출국으로 15.9% 점유율에 해당하는 134억 4,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중국은 14.6%(123억 2,000만 달러) 점유율로 2위였으며, 일본이 13.7%(115억 7,0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수입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1,335억 7,0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수입 증가율 또한 정부가 설정한 3.5% 성장 목표를 상회했다.

[Cont. page 5]

## 2025년 무역적자, 4년래 최저 수준으로 감소

[Cont. from page 4]

2025년 수입 증가율은 2024년 1.1% 증가해 1,276억 달러를 기록했던 것보다 빠르게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제조품 중 대부분은 전자제품이 차지했으며, 점유율은 23.9%였다. 해당 품목은 16.7% 증가한 319억 4,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반도체는 20.1% 증가한 222억 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2025년 필리핀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28.6% 점유율에 해당하는 382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어 한국이 7.9%(105억 8,000만 달러), 일본이 7%(105억 2,0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6/01/27/726663/trade-deficit-narrows-to-4-year-low-in-2025/](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6/01/27/726663/trade-deficit-narrows-to-4-year-low-in-2025/)

## 성장 반등의 열쇠는 투자 회복

January 27, 2026 | Niña Myka Pauline Arceo | The Manila Times

공공 및 민간 투자의 회복이 필리핀 경제의 점진적 성장을 이끌고 6.0% 수준의 성장률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아시아개발은행(ADB)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The Manila Times®**

ADB 필리핀 국장 앤드루 제프리스(Andrew Jeffries)는 지난 금요일 방코 센트랄 ng 필리핀(BSP) 주최 은행권 연례 리셉션에서 기자들에게 “2026년의 주요 변수는 공공 투자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가”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마 두 분기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며, 올해 하반기가 2027년 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프리스 국장은 2026년 전망에 대해 “1분기는 다소 느릴 수 있고, 2분기는 조금 나아지고, 3분기도 조금 더 나아지며, 4분기는 좋은 성과를 내는 그림을 상상해보라” 고 설명했다.

6.0% 성장률 회복이 가능하지만, 제프리스는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높은 투자 수준이 핵심 동력이 될 것” 이라며, “다른 경제 지표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개혁, 투자 촉진 강화, 그리고 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주변 국가들이 해왔듯 필리핀도 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마닐라에 본부를 둔 ADB는 “공공 인프라 지출 감소” 를 이유로 지난달 필리핀의 2025년과 2026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각각 5.0%와 5.3%로 낮췄으며, 이전 전망치였던 5.6%와 5.7%에서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필리핀은 6.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9.5% 급락했다. 이후 2년간 회복세를 보이며 2022년 7.6% 성장을 기록했지만, 2023년과 2024년에는 목표치를 밑도는 5.5%와 5.7%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5.5%~6.5% 성장을 목표로 했으며, 연초에는 다소 미진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목표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홍수 방지 프로젝트 관련 부패 스캔들로 인해 3분기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고, 이는 연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세 번째 연속 성장률 목표 미달과 연간 성장률이 5.0% 이하로 둔화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BSP 엘리 레몰로나 주니어(Eli Remolona Jr.) 총재는 2025년 성장률이 4.6%로 둔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사회경제계획부 장관 아르세니오 발리사칸(Arsenio Balisacan)은 4.8~5.0% 수준을 전망했다.

이번 달 초, 레몰로나 총재는 부패 스캔들이 경제 성장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며, 투자자와 가계 신뢰 상실이 2026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올해 성장률이 5.4%로 회복될 것이며, 2027년에는 6.0~6.2%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각 하향 조정된 2025~2026년 목표치 5.0~6.0%와 2027년 목표치 5.5~6.5% 범위 내에 해당한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6/01/27/business/top-business/investments-recovery-key-to-growth-rebound/2265293](https://www.manilatimes.net/2026/01/27/business/top-business/investments-recovery-key-to-growth-rebound/2265293)

## 필리핀, 아세안 통합에서 진전… 그러나 여전히 뒤처져 — 싱크탱크

January 27, 2026 | Ruelle Castro | Malaya Business Insight



### PIDS, 필리핀에 아세안 내 경제 협력 강화 촉구

필리핀은 아세안(ASEAN) 통합 심화로 일부 성과를 거두었지만, 정부 지원 정책 연구기관인 PIDS(필리핀 개발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지 않아 필리핀 노동자와 기업이 얻는 실익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연구는 경쟁력 격차, 디지털 준비 부족, 목표 달성 미흡 등이 이러한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필리핀 개발연구소(PIDS)가 발표한 논문 “ASEAN 경제공동체: 지난 수년간의 벤치마킹, 신흥 동향, 미래 경로”에 따르면, 필리핀의 아세안 경제공동체(AEC) 통합은 “필리핀 국민에게 더 폭넓은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지속적인 격차”가 특징이라고 평가됐다.

### 혼재된 성과

연구진은 “AEC 통합을 향한 진전은 필리핀에게 혼재된 성과를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무역 자유화와 지역 협력에서의 진전은 인정하면서도, 경쟁력, 디지털 준비, 포용적 성장 등에서 여전히 약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연구는 지역 차원의 약속을 국내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여전히 과제라고 강조했다. 보다 통합된 아세안 경제가 필리핀 노동자, 소비자,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성과를 내기까지는 난관이 있다는 것이다.

논문은 PIDS의 수석연구원 프랜시스 마크 킴바(Francis Mark Quimba), 감독 연구전문가 마크 안토니 배럴(Mark Anthony Barral), 전직 연구 분석가 알리아 메이 살라자르(Alliah Mae Salazar)가 공동 저술했다.

AEC 블루프린트 2025의 지표를 활용한 분석 결과, 필리핀 개발계획(PDP) 2023-2028의 목표 중 약 46%가 달성 불가능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업, 인프라, 평화·안보, 사회보장 분야에서 목표 미달 가능성이 높았다. 이들 분야는 지역 및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핵심으로 평가된다.

연구는 PDP가 전반적으로 AEC의 주요 기동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 정렬을 실제 성과로 전환하는 데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 글로벌 아세안: 농천 기회

연구는 “‘글로벌 아세안(A Global ASEAN)’을 명확히 주도하거나 대표하는 주체가 부재하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 외교, 지속가능성을 하나의 통합된 의제로 묶을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최근 몇 년간 필리핀의 아세안 내 무역과 투자자 등락을 거듭했다고 언급했다. 2020년에는 수출이 감소했으나 2022년에 회복했으며, 2023년에는 다시 감소하여 아세안 내 필리핀 무역 비중은 29%에서 22%로 줄었고, 회원국 중 6위를 기록했다.

수입은 전체 무역의 약 78%를 차지해,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아세안 회원국 간 관세율이 이미 거의 0% 수준이지만, PIDS는 규제 불일치, 기술 기준, 국경 절차와 같은 비관세 장벽이 블록 내 심화된 무역 통합의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생산성과 혁신의 취약성

연구는 또한 필리핀의 생산성과 혁신 구조적 약점을 지적했다. 필리핀 노동 생산성은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보다 뒤처져 있으며, 연구개발(R&D) 투자도 2018년 GDP 대비 0.32%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지역 기준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연구는 “연결성(connectivity)과 산업별 협력도 개선이 필요하다. 아세안 내 관광과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은 여전히 낮고, 운송량은 팬데믹 기간 급감했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의 청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5년 49%에서 2024년 45%로 감소했으며, PIDS는 이는 아세안 내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음에도 젊은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연구는 필리핀이 2022년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 FTA) 파트너국에 대한 수입 관세를 1.05%로 낮췄지만, GDP 대비 아세안 외 교역 비중은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Cont. page 7]

## 필리핀, 아세안 통합에서 진전… 그러나 여전히 뒤처져 — 싱크탱크

[Cont. from page 6]

### RCEP에 대한 기대감

PIDS는 앞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잠재적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하며, 해당 협정이 지역 가치사슬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구는 또한 아세안 디지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ASEAN Digital Economy Framework Agreement)을 블록의 다음 성장 단계의 주요 수단으로 지목하며, 단 연결성 격차와 기술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세안 통합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PIDS는 필리핀이 무역 비용 절감, 중소기업의 지역 생산 네트워크 참여 확대, 비관세장벽 검토, 목표별 투자 회랑 개발 등을 통해 아세안 내 경제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규제 개선, 농촌 연결성 강화, 디지털 역량 프로그램 확대, 정부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향상을 통해 디지털 경제 조치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연구는 민간 부문에도 지역 공급망 참여 확대, 혁신 촉진, 아세안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공급망 녹색 전환 지원을 권장했다.

PIDS는 “보다 연결된 역내 경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려면, 필리핀은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며, 사람 중심 정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리핀이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아세안 내 역할뿐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적 기회와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ph-gains-in-asean-integration-but-still-trails-think-tank/>

###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SGV**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Will you  
shape the  
future**

**or be  
shaped  
by it?**

With our spectrum of services, skills  
and ecosystems, SGV teams help  
create new value across sectors.  
[sgv.ph](https://sgv.ph)

■ ■ ■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In everything we do, we nurture leaders  
and enable businesses for a better Philippines.  
[sgv.ph](https://sgv.ph) **#SGVforABetterPhilippines**

© 2025 Sycip Gorres Velayo & Co. All Rights Reserved.